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 부모의 기대와 개입을 중심으로*

손 승 영**

초 록

이 논문에서는 청소년의 요구가 다양해지고 있는 오늘날의 소비사회에서 가족의 자녀 사회화는 어떠한 내용으로 진행되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평가,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개입에 대해 질문해보았다. 특히 심층면접법을 활용해서 가족에서 행해지는 사회화에 대해 생생하게 연구하고자 시도하였다. 심층면접은 총 36명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실시되었다. 조사 결과, 변화하고 있는 청소년의 취향이나 소비패턴은 가족사회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부모는 자녀의 바람이나 요구에 상관없이 학업성취에 대한 기대가 크며 공부나 성적을 기준으로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녀가 학업 외에 다른 것에 관심이 많을 경우에는 부모가 개입해서 제재를 가하고 학업에 몰두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 한편, 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정보 얻기 노력이나 연결망 활용은 초등학생 때에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국 부모들의 자녀 사회화 내용은 다원주의적 가치에 기초하기보다는 공부 중심의 경쟁적 사회분위기를 수용하므로 대체로 유사한 성향을 보이고 있으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의존적 태도를 당연시 하고 있다.

주제어 : 자녀 사회화, 부모-자녀관계, 부모의 기대, 개입, 교육열

* 이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07년도 연구과제 ‘질적 연구를 통해서 본 청소년기 사회화 과정 : 국제비교’ 중 본인이 맡았던 부분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논문을 읽고 유익한 지적과 논평을 해주신 논평자 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 동덕여자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여성학 전공 교수

한국 사회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상당한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자녀 사회화의 내용은 가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한다. 자녀를 권위적으로 엄격하게 대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친구처럼 다정하게 대하는 부모들도 있다. 자녀에게 많은 용돈을 주는 것을 당연시 하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최소한의 용돈만 주는 부모들도 있다. 어릴 적부터 자녀의 취미 형성에 신경 쓰는 부모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부모들도 있다. 이와 같이 일상의 사회화에 있어서는 다양성을 보이는 한국의 부모들도 유독 교육열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유사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선행연구들에서는 한국 부모의 교육열이 높다는 점을 들어서 부모는 자녀에 대한 물질적 및 정서적 지원자정도로 막연하게 규정되고 있다(조성숙, 1995: 178-180; 손승영, 2000: 130). 또한 다른 논문들에서는 청소년 자녀와 부모세대간 의식이나 태도에 있어서 차이가 크며, 부모-자녀 간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며, 입시중심의 교육제도에 대해 청소년들은 저항하는 편으로 지적하고 있다(이한, 2000: 240). 그러나 일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부모의 자녀 사회화 내용이나 부모-자녀 관계의 구체적 측면에 대해 실제로 자세히 조사한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다(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98-99). 일상에서 행해지는 부모-자녀 관계 속에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치는 무엇이며, 어떠한 바람과 함께 자녀를 양육하고 교육시키고 있는지,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정도는 어떠한지,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

이 연구에서는 첫째, 한국 사회의 특수성과 가족문화를 고려해서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질문하고 중요한 특성을 찾아내고자 한다. 특히 자녀에 대한 부모의 기대와 평가 및 개입의 정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가족에서의 사회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부모-자녀관계에서 젠더 차이가 어떠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버지와 어머니를 모두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셋째, 자녀의 연령이나 학년에 따라 사회화 내용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I. 선행연구 검토

잉글하트는 43개국의 문화, 경제, 정치 변동에 대해 비교연구를 한 결과, 한국이 세대 간 가치관 격차가 가장 큰 나라 중 하나라고 밝히고 있다. 지난 40년간 빠른 속도로 경제적 번영을 이룩해 온 남한에서는 높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상대적으로 가치변화가 크고 세대 격차가 생겨나게 되었다는 것이다(Inglehart, 1997: 146). 최근 들어서는 정보화 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세대 격차가 더 벌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도현심, 2003: 62-63). 20대나 30대 젊은 어머니들은 인터넷이나 전자 메일에 익숙한 편이지만, 청소년 자녀를 둔 40대와 50대 어머니들 중 상당수가 컴퓨터와 무관한 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청소년기가 되면 자녀의 취미나 관심이 다양해지고 생활세계가 넓어짐에 따라, 또래집단과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므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줄어들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자신의 존재의미를 찾고 자아정체감 형성을 위해 고민하는 때이기도 하다(Erikson, 1994). 청소년기에는 자아가 강해지고 사춘기를 맞아 정신적 방향이 커짐에 따라 부모들의 청소년 자녀에 대한 만족도가 상당히 낮게 나타난다(Steinberg & Silverberg, 1987: 755).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이 중요해지며, 부모를 포함한 가족성원의 영향력이 약해진다는 것이 선행연구에서도 입증되었다(임영식, 2004). 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 청소년들의 소비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소비패턴이 다양해짐에 따라 청소년들 사이에서도 차이를 보이기 시작했다(조성남·이동원·박선웅, 2002). 십대를 겨냥한 상품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되고 청소년들이 구매력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는 소비사회에서 오늘날 청소년들은 분명 과거와는 달라지고 있다. 자본주의 상업시장의 영향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개별화된 라이프스타일의 등장과 함께 각 개인의 취향과 욕구가 일상생활에 다양하게 반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은 대중문화의 주체적 소비자로서 자리잡기 시작했다는 것이다(정용교, 1998: 61; 최윤진, 2002: 16-17). 더욱이 신매체와 신기술로 무장한 신세대 청소년들은 과거에 비해 더욱 적극적으로 팬덤,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 등 독특한 문화적 양상의 소비와 생산에 참여하는 생비자(prosumer)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전상진·김민·최순중, 2006: 6).

가족사회화란 부모가 자녀를 어떠한 방식으로 적정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우 는가

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Zigler and Child, 1969: 450). 하지만 가족의 자녀사회화 과정은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소년이 또래와 관계 맺는 양상이나 가족에 의존하는 정도는 시대에 따라 달리 나타난다. 오늘날의 부모-자녀관계는 부모가 젊을 때는 집안일을 돕다가 노후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등 지속적으로 부모를 돕는 존재로 인식되던 농경사회에서의 자녀역할과는 판이하게 다르다(Easterline, 1973). 과거에 비해 자녀의 부모 봉양 의무는 약화된 반면, 양육의 기쁨 및 정서적인 애착 대상으로서의 자녀 이미지는 강화되고 있다(DeWitt, 1992: 48-49). 또한 한국전쟁 직후인 1960년대만 해도 특정 계층만 대학준비를 하고 공부를 계속함에 따라 ‘학생’이라는 신분자체가 선망의 대상이 되던 시기였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의 십대들이 학생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학생이라는 사실만으로 부러움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어떤 지역에서 살고 있는지, 얼마나 유명한 학원을 다니고 있는지, 원어민 영어교육을 받고 있는지 등 과거와는 달리 값비싼 학원 중심의 ‘여유 계층 선망’으로 불릴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IMF 전후를 비교한 선행연구에서는 한국 청소년들이 일관되게 경험하는 가장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은 학업문제임을 지적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성취와 관련해서 학업문제가 부모-자녀관계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박영신·김의철, 2003: 142-144). 신자유주의 경쟁체제 하에서 청소년들은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개성을 추구하고 다양해진다고 얘기할 만큼 요구가 많고 당당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반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서도 더 심한 경쟁을 해야 하는 구조적 모순에 처해있다. 1990년대 이후 급속하게 확장된 한국의 사교육시장에서는 어머니의 교육 관리자 역할이 강화되어서 나타나고 있다(Park, 2006). 이 과정에서 자녀교육을 둘러싼 모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어머니 역할의 상당 부분이 자녀교육과 관련되어서 행해지고 있다(심영희, 1996: 13-14, 1999: 361; 윤택림, 1996: 94). 부모가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갖고 있는지가 어머니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 인정받는 현실에서 가족 간 사회적 자본의 차이는 구체적으로는 부모의 인간자본, 교육에 대한 관심 및 기대, 자녀교육에 대한 부모의 개입방식 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안우환·김경식, 2005: 32-33). 한국의 부모는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를 위해 많은 것을 베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자녀들은 부모의 지원과 서비스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가 조금이라도 서비스를 베푼다면 그 가치

를 매우 높게 평가하는 경향을 보인다(이선이·김현주·이여봉, 2006: 105). 오늘날과 같이 경쟁적 풍토가 강화된 소자녀 사회에서는 자녀 양육이나 교육의 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부모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은 늘어가고만 있다(김소희, 2004: 271).

이와 같이 청소년기가 급속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사회화의 내용 또한 변화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이 글에서는 청소년들의 다양해지는 요구가 한국 부모의 자녀에 대한 영향력을 줄어들게 만들고 있는지, 아니면 부모의 기대와 일방적 개입을 통해 여전히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로 한다.

II. 연구 방법

이 연구에서는 일상에서 나타나는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 영향력, 자녀와의 관계를 상하게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접법(in-depth interview methods)’을 활용하였으며, 연구대상은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이다. 사례 선정은 위해서는 학부모와 대학원 학생 8명의 도움을 받았으며, 각 유형에 적합한 사례 목록을 2배수로 만든 다음, 보다 적절한 사례를 골라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사례 선정 시에는 자녀의 성별, 학년급별, 부모의 계층과 성별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자녀의 성별은 아들·딸 (2가지), 학년급별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3가지), 계층은 상·중·하 (3가지), 부모의 성별은 아버지·어머니 (2가지)로 구분해서 총 $2 \times 3 \times 3 \times 2 = 36$ 개의 사례를 포함시켰다. 그 결과,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 12명, 중학생 자녀의 부모 12명, 고등학생 자녀의 부모 12명이 최종사례로 선정되었다. 초등학생 자녀의 부모 경우 상류층 4명, 중류층 4명, 하류층 4명이 심층면접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각 계층의 부모 중에서 2명은 어머니, 2명은 아버지를 선정하였다. 대상자를 확정된 다음에는 집 또는 직장을 방문해서 심층면접을 실시하였으며, 사례별 면접에 소요된 시간은 2시간 정도이다. 또한 주어진 시간동안 충분히 논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나 이-메일로 추가 질문을 해서 보충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사례를 선정해서 2007년 7월부터 11월까지 심층면접을 실시한 결과,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18명씩 총 36명의 학부모

를 인터뷰하였다. 부모의 연령층은 30대가 8명, 40대가 23명, 50대가 5명이다. 부모의 학력은 고졸이 10명, 전문대 중퇴가 1명, 전문대졸이 2명, 대졸이 19명, 대학원 졸업이 3명이고 대학원 재학 중이 1명으로 과반수가 대졸 이상이다. 부모의 결혼 상태는 31명이 유배우자이며, 나머지 5명은 이혼상태이다.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1자녀에 집중해서 부모-자녀관계를 조사하였다. 거주 지역은 강남 12명, 강북 14명, 수도권 10명으로 나타났다.

〈표 1〉 사례의 인적 사항 소개

사례 번호	조사 대상	연령	학력	계층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녀 학년	자녀 성별	거주 지역
1	어머니	41	대졸	상	치과의사	주부	초 6	딸	강남
2	어머니	38	대졸	상	의사	주부	초 1	아들	강남
3	아버지	32	대졸	상	부동산업	주부	초 6	딸	강남
4	아버지	43	대졸	상	자영업	주부	초 2	아들	강남
5	어머니	37	대졸	중	연구원	주부	초 1	딸	강북
6	어머니	39	대졸	중	CF 감독	상담교사	초 3	아들	강북
7	아버지	41	대졸	중	레스토랑	대학강사	초 5	딸	강북
8	아버지	37	대졸	중	만화제작	만화제작	초 1	아들	강북
9	어머니	32	대졸	하	요리사	주부	초 1	딸	강남
10	어머니	47	전문대중퇴	하	해당없음	일용직	초 6	아들	수도권
11	아버지	42	고졸	하	꽃집	꽃집	초 4	딸	수도권
12	아버지	39	대졸	하	떡집	떡집	초 4	아들	강북
13	어머니	45	전문대졸	상	약국경영	주부	중 2	딸	수도권
14	어머니	40	대졸	상	회사임원	주부	중 3	아들	강남
15	아버지	51	대졸	상	무역회사	주부	중 1	딸	강남
16	아버지	46	고졸	상	사업	사업	중 2	아들	강북
17	어머니	41	고졸	중	사업	주부	중 3	딸	수도권
18	어머니	42	대졸	중	해당없음	자영업	중 3	아들	수도권
19	아버지	43	대졸	중	회사원	주부	중 2	딸	강북
20	아버지	52	대학원졸	중	교수	주부	중 3	아들	강남

사례 번호	조사 대상	연령	학력	계층	아버지 직업	어머니 직업	자녀 학년	자녀 성별	거주 지역
21	어머니	41	고졸	하	택배일	공장취업	중 2	딸	강북
22	어머니	39	대졸	하	목사	주부	중 2	아들	수도권
23	아버지	48	고졸	하	운전	공장취업	중 2	딸	강북
24	아버지	51	대학원졸	하	직장선교	해당없음	중 2	아들	수도권
25	어머니	54	전문대졸	상	회사원	자영업	고 2	딸	강북
26	어머니	45	고졸	상	자영업	자영업	고 1	아들	강남
27	아버지	49	대졸	상	임대업	학원경영	고 2	딸	강북
28	아버지	46	대학원졸	상	교수	교사	고 3	아들	수도권
29	어머니	49	고졸	중	약사	주부	고 3	딸	강남
30	어머니	48	대학원재학	중	교사	교사	고 3	아들	수도권
31	아버지	52	대졸	중	회사원	주부	고 1	딸	수도권
32	아버지	45	대졸	중	회사원	대학강사	고 1	아들	강남
33	어머니	40	고졸	하	무직	공장취업	고 2	딸	강북
34	어머니	45	고졸	하	하급공무원	주부	고 2	아들	강북
35	아버지	45	고졸	하	건어물상	건어물상	고 2	딸	강남
36	아버지	42	대졸	하	노점상	해당없음	고 2	아들	강북

III. 연구 결과

심층면접을 통해 조사한 부모의 청소년기 자녀 사회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바람과 기대는 무엇이며, 이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둘째, 부모와 자녀간의 실질적 관계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셋째, 자녀 사회화 과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일상생활에 대해 얼마나 개입하고 있는지 그 정도와 내용에 대해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부모들이 자녀와 관련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방식과 부모 연결망에 대해서도 주목하였다.

1. 부모의 자녀에 대한 기대와 평가

1) 부모의 기대치와 경쟁사회 논리의 내면화

학부모에게 자녀로부터 가장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한 결과 대부분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12명의 초등학생 부모 중에서 공부를 언급하지 않은 부모는 단 2명에 불과했다. 공부를 잘 한다거나 영어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내보인 부모도 있으며, 공부 뒷바라지를 잘 못해줘서 아이가 공부를 잘 못하는 것에 대한 자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얘기들을 했으나 10명의 부모들은 모두 공부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 부모의 다수는 자녀에게 공부하는 습관을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중학생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반적인 학습태도보다는 성적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건강하고 성격이 활발해졌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모로서 바라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바라는 것은 건강하고 활발해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성적이 나 심성이 착하면 더욱 좋겠지요(사례 7, 아버지, 초등자녀, 딸).”

저학년 때에는 생활습관이나 인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던 부모들에게도 자녀의 학년이 높아지게 되면 대학입시를 목표로 한 학업성취가 최대 관심사로 등장한다. 자녀가 공부를 잘 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공부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고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악바리 근성을 발휘하고 또 약아서 자기 것을 잘 챙기기를 희망하고 있다(사례 27). 부모들은 자녀를 사회화시키는 과정에 있어서도 인성중심의 교육보다는 학교에서의 경쟁에서 이기기를 원하며 이는 성적에서뿐만 아니라 교우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친구에게도 너무 잘해주는 자녀는 그러다가 손해를 보거나 상처를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부모들은 자녀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좋은 태도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지는 않았다(사례 1).

“중학교 일 학년인데도 남을 너무 배려하다보니까 자기 스스로 챙겨야 할 것, 누려야 할 것을 조금 소홀히 하는 거 같아요. 또 상대방을 너무 의식하고 남을 너무 배

려하다보면 자기한테 너무 소홀해질 것 같다는 우려가 있어요. 자기를 먼저 챙기고 자기가 좋은 것도 표시하고 해야 할 텐데요(사례 15, 아버지, 중등자녀, 딸).”

중학생과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나타난 또 다른 차이점은 자녀의 커리어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아이가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갖도록 노력해야 한다거나 전문직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미래 직업과 관련된 바람을 얘기하는 부모가 많았다는 점이다. 자녀가 어떤 방향으로 자라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막연한 질문에 24명의 중고등학생 부모 중에서 9명이 구체적으로 자녀의 직업과 관련된 얘기를 함으로써 고학년이 될수록 자녀의 공부 성적과 대학진학에 대한 바람은 자녀가 앞으로 좋은 직업을 갖길 바라는 부모의 기대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부모의 자녀 평가 또한 공부가 기준

다음으로는 자녀가 부모의 바람대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다소 막연한 질문을 던져보았다. 연구자가 질문을 할 때에는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답을 예상했으나, 대부분의 부모들은 공부나 학교생활을 염두에 두고 자녀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즉, 높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의 바람이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서도 잘 드러났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고 열심히 하는 경우에는 평가가 매우 좋았고 부모로서의 자긍심이 대화 도중에 자주 배어나왔다. 한 아버지는 아이의 인성이 중요하다고 얘기를 시작하긴 했지만, 곧 이어서 딸이 공부 잘 하는 것에 대해 장황하게 늘어놓았다(사례 11). 또한 자녀가 공부습관이 잘 되어있어서 스스로 열심히 노력하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 학부모들도 만나볼 수 있었다(사례 16).

“저는 아이가 공부 잘 하는 것보다도 사람답고 성실하고 인간미 있는 사람 냄새나는 그런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애가 성적도 우수해서 모두 칭찬 일색이에요. 영어랑 한자를 특히 잘하는데, 한자는 내가 특별히 가르쳤어요. 앞으로 유라가 어른이 되어서 10년, 20년 후에는 중국이 급부상할 테니까요. 한문을 많이 알아야 우리 국어, 중국어, 일본어를 습득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찍부터 가르쳤더니 시험만 쳤다하면 100점이고 완전 톱이에요. 게다가 한번 이것만큼은 해야겠

다 싶으면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하더라고요. 문제를 하나 풀다가 막혔다 싶으면 풀릴 때까지 밥도 안 먹어요. 그런 점을 보면 뭔가 하면 성공하겠다는 생각이 들죠 (사례 11, 아버지, 초등자녀, 딸).”

반면, 열심히 하지 않는 자녀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았으며, 자녀의 생활 습관이나 공부습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다. 또 학교생활에 소극적이거나 아이가 자신감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도 걱정이었다. 또한 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골고루 잘 하지 않고 편식을 하듯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을 하겠다는 자녀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사례 6).

3) 성별로 달리 나타나는 자녀 평가와 기대

이 조사에서는 자녀의 성별을 사례선정 기준으로만 포함시켰을 뿐, 구체적으로 성별 차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지는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모의 대화 내용 속에서 자연스럽게 아들과 딸을 비교하거나 구분하는 이야기들이 흘러나와서 남녀 차이에 대한 부모들의 생각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여자 아이들이 더 악바리같이 공부를 잘한다는 의견들과 함께, 남자 아이들에 비해 할 일을 일찍부터 알아서 스스로 하는 경향이 있다는 평가들을 들을 수 있었다.

“지금은 정말 여자아이들이 공부를 더 잘해요. 악바리 같이. 민영이 오빠가 중3인데, 중3에서 전교 10등 이내가 다 여자아이예요. 그래서 남학생들 학부형은 불만이 많아요. 원래 여자애들이 악바리고 학교에서도 평가가 여학생들한테 유리하니까 잘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지금 민영이 오빠네 반 여학생이 전교 일등인데 그 아이는 시험 때는 스트레스 때문에 구토까지 하면서 공부를 한대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현실적으로 딸에 대한 능력 평가나 커리어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전형적 성역할에 기초한 기대가 작용하고 있다. 단적인 예로 딸은 얼굴이 예뻐야 하며 날씬해야 한다는 기대를 몇몇 부모의 의견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딸이 뚱뚱한 것에 대해 불만이어서 얼른 날씬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제시한 부모들이 있었

으며(사례 15), 딸이 예쁜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사례나 사근사근하고 사교적인 성격에 대해서 자랑을 늘어놓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과 사례 19). 또한 심한 경우에는 가족에서 아직도 남아선호가 강하게 주장되고 있는 결과, 딸을 낳고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그로 인해 딸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9).

다수의 부모들은 아들이나 딸에 상관없이 전문직을 갖고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살기를 바란다. 그러나 딸들에게는 안정성에 더 무게를 실고 있었으며, 한번 결정되면 무난하게 평생 직업으로 일할 수 있는 교사나 공무원이 되기를 희망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여자니까 집안일이나 하면서 가정주부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통적인 의견을 제시한 부모는 단 한명도 없었던 점이다. 딸 세대는 여자도 경제적으로도 자립함과 동시에 어떤 경우가 닥쳐도 잘 살 수 있기를 바라는 부모의 심리가 드러났다(사례 21). 그러나 아들에게는 여전히 ‘가문의 기대’라는 용어를 쓴다거나(사례 20), 자신이 원하는 직업보다는 남자에게 어울리는 일을 하기를 바란다고(사례 26), 안정성을 뛰어넘어서 보다 넓은 세상에서 꿈을 펼치기를 바라는(사례 1) 등 딸과는 다르게 나타났다.

“아들은 의사가 되려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공부도 매우 잘하는 편이고 의사가 되기에는 좀 아까워요. 남자는 좀 더 큰 세계와 교류하면서 자신의 능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딸은 의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 남성우월적인 세상이 계속될 거라고 보는데 이런 세상에서는 여자들이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사는 게 좋을 거란 생각이예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한 가지 흥미로운 경우는 딸은 요리사의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아버지는 여경을 권하고 있는 사례이다. 과거에는 여성스러움이나 전통적으로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을 부모가 권장했다면, 지금은 변화하는 여성의 역할을 반영하듯이 안정된 커리어 갖기의 필요성을 높이 사므로 여성 직업에 대한 선호도가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례 23).

2. 비대칭적인 부모-자녀 관계

1) 학년이 올라갈수록 갈등이 늘어나는 부모-자녀관계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질문에서는 대부분 큰 문제는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초등학교 부모들은 한명(사례 9)만 빼고 11명이 의사소통이 활발하며 자녀가 숨김없이 다 얘기하는 편이라고 대답한 반면, 중학교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들 중에서는 아이가 나이가 들수록 부모에게 숨기는 게 많아지고 서먹서먹해졌다고 대답하는 사례들이 있었다(사례 12). 특히 중학생이 되면서 과거에는 애교도 떨던 딸이 애정표현을 안 하고 무뚝뚝해지는 것에 대해서 아빠들이 서운한 마음을 드러냈다. 사춘기 딸들은 아버지를 향해 말수가 적어지고 친밀한 관계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심한 경우에는 거리가 생겨서 의도적으로 대화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와는 비밀스러운 얘기를 소곤거리는 등 대화가 지속됨으로써 아버지의 서운함을 가중시키기도 했다(사례35). ‘중·고등학생 딸의 아버지로부터의 거리두기’ 현상은 바깥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아버지일수록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경향 또한 보인다.

“어렸을 때는 뽀뽀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애정표현이 있었는데,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니 아빠를 남자로 보는지 애정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보니 대화가 부족해지는 경향이 있고 거리감이 생기는 것 같아요. 나하고는 말을 잘 안 해도 자기 엄마하곤 시시콜콜한 얘기로 수다를 떨곤 하지요(사례 19, 아버지, 중등자녀, 딸).”

“나는 딸애와 잘 지내요. 현미 말에 자기네 친구들 중에서는 이런 엄마가 없다는 거죠. 자기를 이렇게 그 학년만큼 대우해준다는 것을 말하면 모두 다 부러워한대요. 자기 아빠하고는 대화가 잘 되지 않아요. 아빠는 얘기 적의 딸만 생각하는 데 이미 딸은 훌쩍 커버렸지요. 이제 벽이 생기고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아서 나로서는 이것이 풀어야 할 숙제이고 고민이지요(사례 17, 어머니, 중등자녀, 딸).”

부모가 보기에 아이들은 중·고등학생이 되면서 비밀이 늘어나고 있으며, 부모의 말을 안 듣기 시작하고 대드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부모들은 사춘기여서 아이들이 저항적으로 바뀐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공부에 시달리면서 정서적으로도

메달라가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참고 지켜본다고 한다(사례 32). 아이들은 중학교에 진학하면서부터 학원수업이나 과외를 받는 시간이 늘어나서 바빠지는데다가 주말에는 식구들보다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경향이 생기면서 부모와 함께 하는 활동이 줄어들고 있다. 자연 부모와의 대화가 줄어들고 밖에서 생긴 일을 이야기하지 않게 되면서, 비밀이 늘고 부모가 친구나 학교에 대해 물으면 짜증을 내기도 한다. 부모들도 일에 바쁘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적은 것이 관계가 소원해지는 원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사례 35).

또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내용을 설명하면서 아들을 둔 부모는 아들이어서 사근사근 얘기하지 않으므로 의사소통이 잘 안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딸을 둔 부모는 딸이어서 비밀이 많다보니 잘 안 통한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잘 되는 경우는 아들이거나 딸이기 때문에 관계가 좋다는 식의 주석을 아무도 붙이지 않았다.

2) 부모-자녀 간 마찰의 원인

초등학교 부모들은 아이의 생활습관과 공부습관 잡아주기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학교에 들어오면 아이가 원하는 것이 뚜렷해지고 시간을 보내는 패턴이 바뀌어서 부모와의 마찰이나 갈등이 초래하기도 한다. 부모가 얘기한 자녀와의 구체적인 갈등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헤어스타일, 명품 밝히기, 스타에 대한 과도한 관심, 이성문제, 컴퓨터 게임중독 등으로 나타났다.

첫째, 자녀가 학교에서 정해 둔 두발 규정을 어기고 머리를 기르고자 할 때 부모는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라고 강요하면서 자녀와 마찰이 생긴 경우이다. 중학생인 아들은 염색이 안 된다는 것까지는 이해하겠는데, 머리 길이나 모양에 대해서도 규제를 두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투덜대곤 한다. 어머니가 잔소리를 해서 머리를 짧게 자르고는 자기 헤어스타일이 싫고 애들이 모두 같은 모양을 하고 나타나는 학교가 싫다고 불만이 많다고 한다(사례 18).

둘째, 아이가 커 가면서 메이커 옷이나 가방과 신발 등을 명품으로 밝히기 시작하면서 가정형편이 안 되는 어머니가 딸을 나무라거나 규제를 하는 경우이다. 디자인을 전공하는 고등학생 딸은 주위 친구들이 다 갖고 있는 거라고 투덜대면서 명품을 사줄

것을 요구하지만 어머니는 못 해주는 처지가 힘들 뿐만 아니라, 아이에게 매일 야단을 치기 때문에 관계가 나빠졌다고 한다(사례 33).

셋째, 중학생 딸이 친구들이랑 어울려 다니더니 스타에 푹 빠져서 팬클럽에 들고는 스타 얘기만 하고 온통 신경을 그쪽에 쓰고 있는 경우이다. 학교 공부도 소홀히 하더니 나중에는 친구관계도 나빠지고 집에 와서도 신경질이 늘었다고 한다.

“초등학교 때까지 수진이는 완벽했어요. 공부도, 생활도, 친구관계도 나무랄 데가 없었어요. 하지만 중학교에 가서 학교 분위기 때문인지 주로 화제가 연예인들의 신변잡담에 쏠려있었어요. 여러 파가 있어서, 자기네들끼리 동방신기와, 수퍼주니어와 하며 패거리로 갈라지기도 했어요. 연예인들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친구관계가 틀어지고 상처를 받기도 했지요. 그러면서 그 스트레스가 집안 식구들에게로 왔어요. 집에 와서도 깔끔하고 성실했던 예전 모습과는 달리 흐트러져 있고, 나태하고 엄마에게 화도 자주 내어서 사춘기 증상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정도가 심했어요. 결국 이사를 하고 학교를 전학시킬 수밖에 없었어요(사례 19, 아버지, 중등자녀, 딸).”

넷째, 청소년 자녀의 이성문제가 발생하면 부모에게 고민거리가 되고 아이가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너무 늘어나 통제를 가하게 되면 저항의 원인이 되었다고 한다. 이성교제를 하는 동안 자녀는 온통 신경이 이성 친구에게 가있어서 공부에 소홀하게 되고 귀가 시간도 늦어지므로 부모와의 갈등 요인이 되었다(사례 26).

다섯째, 자녀가 한번 컴퓨터 게임을 시작하면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해서 부모는 잔소리를 하게 되고 집에서 못하도록 제재를 가하니 부모를 속이고 PC방에서 게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는 야단을 치게 되었다는 것이다. 부모가 보기에는 게임을 적당히 조금만 하고 공부도 했으면 좋겠다 싶은데, 아이가 시간 분배를 적절히 하지 못하니 야단을 치게 되고 매일 다투게 된다는 것이다(사례 14).

이와 같이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에 나타나고 있는 갈등이나 마찰의 원인은 다양하다. 자녀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지만, 이를 못마땅해 하는 부모가 제재를 가함에 따라 일상적인 갈등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부모가 사소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개입의 정도가 약해서 간섭의 형태로 나타나지만 일단 심각한 일탈로 판단이 되면 강한 통제를 가하게 된다. 인기 연예인에 몰입한 자녀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 친구와 끊어놓으려 이사를 강행하기도 하고 공부에 방해된다고 판단되는 이성친구와의 관계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행사해서 성공을 하기도 한다. 부모들은 낮은 수위의 간섭과 잔소리에서부터 강한 통제와 제재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서 자녀가 학업에 몰두하도록 하는데 관심을 쏟고 있다.

3)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시하는 부모

부모들은 자녀를 위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이에게 집안일을 시키더라도 잔심부름 정도이다(사례 14와 사례 24). 맛벌이 가족의 경우 아이가 집에 와서 스스로 밥을 챙겨먹는 것을 대견해하고, 아침에 깨우지 않아도 잘 일어나는 정도에 만족하고 있는 실정이다(사례 16과 사례 26). 자녀에게 시키는 심부름의 내용은 분리수거 하는 것을 돕기, 방학 동안 설거지하기 정도이며, 또 심부름을 시킬 때는 심부름 값을 주는 경우들도 있었다(사례 11). 부모들 중에서는 아이들이 집안일을 돌보는 대신 오히려 그 시간에 열심히 공부할 것을 희망하는 사례들도 있었다. 공부는 때가 정해져 있어서 그때 잘 하지 않으면 후회하게 되고 때를 놓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사례 27과 사례 32). 너무 지나친 경우도 있어서 중학생 딸을 유치원 아이 수준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녀의 의존성을 당연시 하는 어머니도 있었다.

“진미는 내가 없으면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 감고 등교 준비하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까요. 항상 내가 붙어있어요. 무슨 일이든 나와 상의해야 하니까 내가 다른 일을 못하지요. 애가 학교에 갔다 오면 나는 전적으로 아이에게 매달려있어요. 간식주고 좀 쉬게 하면서 내가 눈치를 살피지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의논할 문제는 없는지... 전 항상 진미가 집에 오기 전까지 모든 용무를 다 마치고 들어와서 아이에게 집중해요(사례 13, 어머니, 중등자녀, 딸).”

아이들은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자녀 중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경우는 단 한 사례도 없었다. 부모들은 공부가 중요하니까 아르바이트는 대학에 가서나 하면 된

다는 반응을 보이면서 청소년 자녀에게 용돈을 대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었다. 아이 친구들 중에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자신의 아이는 공부에 방해가 되니 시키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었다. 그러나 부모들 중에는 자신이 어릴 적에 비해 자녀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하고 있지만, 아이들이 이를 당연시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는 것이 불만을 지적했다(사례 4와 사례 7).

이처럼 대부분의 가족이 자녀에게 부족한 것 없이 풍족하게 지원을 해주는 상황에서 그렇지 못한 부모들은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자신이 자녀에게 제대로 못해준다고 느끼는 부모는 아이들에게 상당히 미안한 느낌을 갖고 있으며 자신이 처한 현실이 안타깝다고 속내를 드러냈다(사례 9). 뿐만 아니라 자신은 비교적 부유한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살았는데, 자녀에게는 그렇게 못해주는데 대해서 커다란 아쉬움을 갖고 있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6).

4) 사교육비 지출을 의무로 생각하는 부모

대부분의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 사교육비 지출이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다. 너무나 가정 형편이 어려워 자녀를 학원에 못 보낸다는 3명만 제외하고는 나머지 33명은 모두 학원에 보내거나 과외를 시키고 있었다. 한 달에 초등학생에게 2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출하는 부모도 “나는 과외비에 별로 안 쓰는데...” 라고 토를 달 정도로 부모들의 사교육 열기는 대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등학생이 영어, 국어, 철학, 한자 등을 배우면서 월 100만원을 투자하는 사례들이 있는가 하면, 중·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매월 200만원 이상을 지출하는 사례도 3명이나 있었다. 모든 사례를 종합해 보면 3명 중 1명꼴로 매월 80만원 이상을 지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사교육비에 돈을 투자하자면 끝이 없기 때문에 계층간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강남에서도 유명 학원가가 즐비한 동네에 사는 부모들은 사교육비 지출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많은 액수를 투자하면서도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너도 나도 학원에 가거나 그룹 과외를 하는 현실에서 사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은 친구 사귀기조차 힘든 현실에 있다(사례 10). 그런 처지에 있는 부모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아이의 기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 걱정이라고 한다(사례 24).

또한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어학연수를 시키기도 한다. 다수의 부모는 자녀가 너무 어릴 때는 외국에 보내고 싶지 않으며 대학에 간 이후에나 생각해볼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강남에 사는 응답자들 중에서는 조기 어학연수가 필수라고 여기는 학부모도 있었다.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아직 보내지는 않고 있어요. 필리핀 같은 나라 얘기는 듣고 있죠. 거기도 고급 영어를 쓰는 지역이 있대요. 엄마들끼리 2-3명에서 돈을 모아서 아파트 좋은 것 2-3억 정도면 사서 지낼 수 있으니까. 전업주부인 엄마들이 2-3달씩 돌아가면서 살고, 직장 있는 경우는 해당되지 않아요. 많은 정보가 있긴 해도 아직은 관심이 없어요. 3-4학년 쯤 됐을 때 방학에 한두 달 정도 보내면 몰라도, 친구 중에 회계사 부부가 있는데 거기 모임 얘기 들어보면 거의 다 초등학교 고학년 때 보낸다고 하더라고요(사례 5, 어머니, 초등자녀, 딸).”

하지만 어린 자녀를 아주 안전한 조건으로 외국에 연수를 보내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포기했다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1). 뿐만 아니라 실제 단기 어학연수를 보낸 적이 있는 사례들 중에서도 자녀가 가족과 떨어져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하기도 했다(사례 2와 사례 31). 또한 어학연수 후에 기대했던 것만큼 공부나 어학 실력이 늘어서 오지 않았기 때문에 효과를 별로 보지 못했다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볼 수 있었다(사례 25와 사례 30). 특히 기러기가족의 경우 가족들이 치러야 하는 고통이 너무나 크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3.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개입

인터뷰에 응한 부모들은 자녀의 일상에 개입하는 정도가 강한 편으로 나타났으나, 부모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 대체로 어머니가 자녀에게 개입하고 있는 정도가 아버지에 비해 강하며, 일하는 어머니에 비해 가정주부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또한 가정주부 중에서도 간식이나 챙겨주고 도시락 싸주는 정도라고 대답하는 어머니에서 전두 지휘하는 어머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부모의 개입 내용에 있어서도 다양하게 나타나서 초등학교 부모의 개입은 주로 학

원 결정 문제, 스케줄 관리, 아이 운전해서 데려다 주기, 공부하는 습관 다져주기, 생활태도 고치기, 귀가 시간 관리하기, 친구관계 확인하기 등 여러 가지였다.

“내가 로드 매니저예요. 학교에서 오면 조금 쉬었다가 딸내미 학원 실어다 주고, 또 아들 학원 실어다 주고. 우리 같은 엄마를 로드 매니저라고 하잖아요? 그런 활동들이 제일 많다보니 주로 아이들 공부와 관련된 것에 개입하게 되는 거고. 딸아이가 학원을 빼먹지는 않는데 30분씩 늦게 가려고 해서 한때는 일주일에 한두 번 패기도 했어요. 때리면 자국이 남잖아요? 그러면 아빠한테 이를 만도 한데 자기가 잘못된 거니까 이르지도 않더라고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중학생 이상 연령층의 자녀를 둔 부모는 시험 때에 더 개입하게 된다고 했는데, 다른 때는 개입을 안 하다가도 시험기간에는 문자를 보내거나 컴퓨터 하는 것에 대해서 더 강하게 간섭을 하기도 하며, 아이에게 시험을 잘 보면 뭘 사준다고 거래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한다는 사례들도 있었다(사례 20). 이 외에 친구관계에도 개입해서 아이가 나쁜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친구에 대한 정보를 구하기도 하고, 친구를 만나 보기도 하고, 더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권유를 하기도 한다(사례 13). 결국 부모가 개입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이에게 공부 습관을 잘 길러주고 매일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동기부여를 해줘야 한다는 데 있었다. 따라서 아이의 공부에 방해가 되는 내용에는 즉각 개입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몸에 배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다(사례 31).

하지만 부모들이 야단치고 잔소리하는 방식으로만 개입하는 것은 아니다. 공부에 시달리는 아이를 보면서 열심히 하라고 하면서도 아이가 안쓰러워서 눈치를 보기도 한다. 이는 주로 고등학생 자녀를 둔 부모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고학년으로 올라갈수록 가족들은 자녀 눈치 보기에 급급한 실정이다. 고등학생인 아들이 시험 때가 되면 잠을 거의 이루지 못한다거나 잠이 들더라도 이내 새벽에 깨어나서 공부하는 긴장감을 유지하는 것이 안쓰럽고 건강을 해칠까봐 걱정한다. 술 마시고 들어와서도 아이가 공부하고 있으면 조용히 해서 말쑥한 척 한다는 아버지(사례 32)가 있었으며, 시험 보고 온 날 성적에 대해 날카로운 편이어서 시험에 대해 궁금해도 묻지 못하고 눈치만 보게 된다는 경우도 있었다(사례 34). 아들이 고3이다 보니 예민해져서 편하

게 해주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부모가 말이나 행동을 조심스럽게 한다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28). 또한 딸에게는 귀가 시간이나 집 밖에서 자는 것에 대해 여자애라는 이유로 더 제재를 내리거나 개입하는 경우들도 있었다. 남의 집에서 자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며 학원이 없는 날에는 여름에는 9시를 넘으면 안 되고 겨울에는 8시 넘어서 들어오는 것은 제재를 한다고 했다(사례 17).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 것에 대해서도 딸에게는 제재를 가한다는 경우가 있었다(사례 11).

4. 부모의 사회적 자본과 연결망 활용

사실 부모들이 자녀의 일상이나 학업에 개입하려고 해도 정보가 없으면 구체적으로 개입하기 힘들다. 부모들은 다른 학부모, 친구들, 학원 선생님이나 강좌들, 자녀를 통해 정보를 얻고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개입하기도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녀의 공부가 중요해진다는 부모들의 얘기와는 달리, 초등학생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중·고등학생의 부모들보다 자녀교육과 관련해서 정보 얻기에 더 적극성을 띠는 점은 예상 밖 결과였다. 중학교 이상에서는 학원이나 과외팀이 필요한 그 순간에 긴박하게 정보를 구하는 반면, 일단 학원을 정하고 나면 부모가 개입하거나 결정해야 하는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중·고등학교에서는 어머니회 회원 중심으로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아이의 진로와 생활에 있어서 더 많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초등학교 때는 부모가 다양한 루트를 통해 정보를 구하고 있으며 훨씬 적극성을 띠고 있다. 그 결과 어머니들끼리의 친목이나 팀 구성은 초등학교에서 더 잘되어 있는 편이었다. 아래의 사례에 소개되고 있는 바와 같이 어머니들이 자녀와 함께 일박으로 놀러 가기도 하는 등 정보전에서 뒤지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정보는 주로 엄마들한테서 얻지요. 여기는 엄마들끼리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데 공부 팀을 짜거나 할 때 아이들 뒷조사를 다 해요. 그런 후에 그 팀 엄마들끼리 상의 해서 아이를 들여보낼지 아닐지를 결정하지요. 철마다 아이들도 포함해서 일박으로 놀러가기도 하고 해요. 특히 아주 잘 하는 아이 엄마랑 친해지려고 많이 노력들 하

고요. 정말 중요한 거는 거기에서 나오니까. 소위 말하는 좋다는 코스 있잖아요? 영재학교 출신에 어느 중학교가 특목고에 학생을 많이 보내는지, 어떤 특목고에 가야 서울대에 많이 가는지 등등. 학원은 어디가 좋고 선생은 어떤 선생이 최고고, 제일 최고의 팀에 끼서 공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얻으려고 애 쓰지요 (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개 중에는 자녀의 친구들로부터 정보를 구하고자 친구들을 집으로 자주 초대해서 어느 학원에 다니는지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알아보기도 한다. 특히 학기 초에 반이 바뀔 때는 반 친구들을 의도적으로 집으로 초대한다고 했다(사례 13). 뿐만 아니라 아이 공부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공부 방법 향상이나 진로에 대한 강의를 듣거나 과학카페에 대한 특강을 직접 들으러 다니는 적극적인 어머니도 있었다(사례 25). 하지만 어머니들이 매일 만나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꼭 도움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고 한다. 때로는 정보가 많아서 골치이기도 하고 잘못된 정보에 휩쓸리면 오히려 시행착오를 겪게 된다는 비판도 있었다(사례 1). "엄마들이 주대가 있어서 자기 지식한테 어떤 교육과정이 필요한지 파악하고 지원을 해야 할 텐데, 남이 좋다고 하는 데는 무턱대고 다 보내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까지 다 휩쓸리면 한도 끝도 없다"는 의견이었다. 또한 사는 동네에 비해 자신의 생활수준이 상위인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정보를 구하고 있어서, 지역 효과보다는 계층 요인이 더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사례 13).

"홍은동에서 대치동으로 처음 이사 왔을 때는 정보가 없다보니 사교육비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은 이쪽 사정을 잘 아니까 꼭 지원해야 할 부분만 하고 있어요. 처음에는 영재교육이고 뭐고 해서 돈을 많이 들였지요. 사실 이쪽 엄마들은 정보가 너무 많아서 휩쓸리는 측면이 있어요. 영재도 아닌 아이들을 영재교육 시키고 과학고라면 다 좋은 줄 알고 인문계 전공할 아이를 과학고 보내려고 하지요(사례 1, 어머니, 초등자녀, 딸)."

이와 같이 정보수집이나 정보 교환에 적극성을 띠는 어머니들이 상당수 있는 반면, 한부모 가족이나 맞벌이 가족에서 일하는 엄마들은 대부분 시간에 쫓겨 살다보니 공부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다른 학부모를 만나지도 못하고 따로 시간을 낼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아이에게 의존하게 된다. 학원에 대해서도 다른 친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으며 어디가 좋다고 하는지 스스로 알아오게 한 다음, 그 제한된 정보를 갖고 자녀와 상의해서 결정을 내린다고 한다(사례 23).

또한 어머니들 사이에서의 정보교류는 활발하지만, 아버지들은 학부모간 교류가 전혀 없는 경우가 다수였다. 심지어는 아이가 현재 중학생이지만 초등학교 입학식 날 한번 학교를 방문한 이후에는 한 번도 학교에 가본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 사례도 있었다(사례 19). 변명이나 하듯 인터뷰에 응한 아버지들은 우리나라 교육 자체가 아버지들을 배제시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어머니들은 아이의 학교에서 임원활동을 하기도 하고 급식당번, 교통정리, 녹색 어머니회 등에서 활동을 하므로 학교 선생님을 만나거나 다른 학부모를 만날 기회가 더러는 있다. 하지만 일하는 어머니들은 다른 부모를 만나서 정보를 주고받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 또한 아이가 학교에서 말썽을 부리지 않고 무난하게 생활하고 있다면 담임선생님과 교류가 없어도 별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다(사례 21).

5. 교육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

대부분의 부모가 경쟁사회의 논리를 수용하고 자녀가 그 제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희망하는 한편, 경쟁적인 한국 사회의 모습이나 학교제도와 운영방식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소수 의견들도 있었다.

첫째, 경쟁사회의 속성이 강해서 점수에 매달리는 학교 교육을 비판적인 태도로 바라보고 있는 학부모는 교육의 목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설정한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사례 3). 교육 목표가 획일적이어서 도구적이고 기능적인 학생 양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교육할 수 있도록 다원화되고 성찰적인 방향으로 변화할 것을 희망하고 있다(사례 19).

둘째, 아이가 원하는 것을 맘껏 할 수 있는 교육여건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아이들을 줄을 세워서 그 속에서 우열만을 가리는 풍토가 아니라 아이 하나하나가 지닌 장점을 파악하고 그 아이의 개별적인 가치를 인정하고 북돋아주는 교육 여건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 아이가 학교 공부를 잘 못해요. 그러나 조직력이 있고 리더십이 있어요. 이런 기본적인 인성이 잘 갖추어져 있다면, 그에 맞춰서 전문적인 것들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애가 비보이 춤을 2년 정도 배웠는데, 이것을 공연할 장소를 마련해주고 숙제도 내주고 싶어요. 네가 프로필을 작성해보고 솜씨 자랑을 맘껏 해보라고요. 스스로 계획 세우고 목표도 만들고 잘 이끌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하고요(사례 18, 어머니, 중등자녀, 아들).”

셋째, 학교 교육은 전 과목 위주로 되어 있어서 만능인을 양산하는 것이 목표다보니 학생들은 달달 외는 방식으로 학교 성적 올리기에만 급급하고 있다. 이는 현실적으로는 힘들뿐만 아니라 그렇게 전 과목을 잘한다는 것이 별 의미가 없다고 한 부모는 지적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지니고 있는 재능 중에 개발할 여지가 있는 특성을 잘 발굴해서 키워줄 수 있는 교육제도를 찾아서 고등학생인 딸아이를 미국에 유학보내기로 결정했다고 그 어머니는 덧붙였다(사례 25).

넷째, 학교 교과 내용의 내용이 갈수록 어려워져서 아이들 수준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사교육에 의존해서 이를 해결하기 때문에, 학교에서는 그 수준을 제대로 맞춰서 시행하고자 하는 노력도 가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책임을 유기하는 현실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의견이 제시되었다. 본인이 과외교사를 하기 때문에 중등과정의 교과서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고 자녀를 가르치기도 하는 이 부모는 교과서의 내용이나 수준을 정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교과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다양한 인재들이 개발되어서 학교 교사들이 학생들을 책임 있게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사례 22).

이와 같이 현 교육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에 있는 학부모들의 경우에도 경쟁적인 교육여건에 대해 대안적 관점에서 목소리를 낸 사례는 단 하나로, 아들이 공부보다는 비보이 춤으로 적성을 살리게끔 돕겠다는 경우뿐 이었다(사례 18). 나머지 부모들은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개선책 정도를 제시하거나 아이를 유학 보내서 성공시켰다는 생각이므로 현 교육체제의 성공담론을 내면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는 커다란 차이를 찾아볼 수 없었다.

IV. 결 론

이 연구에서는 학부모와의 심층면접을 통해 한국 가족에서 진행되는 청소년 자녀 사회화의 내용과 성격을 규명함과 동시에 부모-자녀관계의 특성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한국사회에서의 자녀에 대한 가족사회화 내용에서는 잉글하트(Inglehart, 1997)와 같은 학자들이 가치관 변화를 언급하면서 지적했던 다원주의적 가치관이 팽배해지는 방향으로의 변화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그 근거로 부모가 자녀의 개성이나 적성을 인정하기보다는 공부 중심의 학업습관과 학교성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는 아들과 딸에 대한 구분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모들은 자녀의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 공부를 잘 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안정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다.

둘째, 부모들은 경쟁사회의 속성이나 원칙을 자녀들이 내면화하도록 때로는 제재를 가하고 때로는 동기부여를 하는 등 여러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 부모들은 자신들이 물심양면 노력함으로써 자녀들에게 ‘물질적으로’ 더 나은 삶과 사회적 지위가 주어지기를 바라고 있다. 부모들은 신자유주의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경쟁체제 원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사회에서의 공부 논리는 결코 최우수 학생만을 겨냥해서 성공에 대한 환상을 쫓고 있는 것은 아니다. 열심히 하지 않아서 다른 아이들에게 더 뒤쳐질 수 있다는 미래의 실패에 대한 불안 또한 동일선상에서 작동되고 있다. 그 결과, 대부분의 한국 부모들은 아이들에게 일상적인 공부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셋째, 부모의 바람과 청소년의 실천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부모들은 대부분 학교 성적을 중시함으로써 어느 정도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지만 자녀들은 공부 외적 요인에도 관심이 많아서 학업에 열중하기만을 바라는 부모와의 갈등 원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아이들이 공부에 임하는 태도나 일탈 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만, 공부를 중심으로 한 부모의 자녀 평가기준은 상당히 획일적이다. 결국 아이들의 생활양식이나 태도는 변화하고 있으나, 부모들은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아이들 역시 몰아붙이는 부모에 대해 소극적 형태로 저항할 뿐 큰 틀에

대해서는 수동적으로 따르고 있다. 이 과정에서 나타나는 청소년들의 저항은 부모들에 의해 사소한 것으로 다루어질 뿐이다.

넷째, 이와 같이 자녀에 대한 부모의 통제가 가능한 것은 부모에 대한 자녀의 의존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 지원하는 물질의 양에 있어서는 계층 차이가 있지만, 부모가 아이에게 용돈을 지불하고 사교육비를 지원하는 것은 계층을 망라한 현상이다. 부모들은 자녀에게 돈 버는 아르바이트를 허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고등학생이 되면 아이가 공부에 몰두하는 시간을 뺏기면 안 된다는 이유로 집안일이나 심부름조차 시키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아이가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학교성적이 좋아지면 아이들이 원하는 물질적 보상을 약속함으로써 자녀의 공부습관을 유도하기도 한다. 아이의 소비력이나 구매력은 인정하고 부추기고 있지만, 스스로 용돈별기를 통한 자녀의 경제적 자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학력강조 사회에서 한국의 부모는 자녀의 의존을 당연시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관계에서의 비대칭적 구조를 이용하는 경향마저 보인다.

다섯째, 어머니의 정보 수집 능력 자체가 자녀교육을 위한 문화자본으로 통용되고 있는 현실에서 학부모의 사회적 자본이나 연결망은 계층별로나 거주 지역별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중상류층 어머니들은 같은 계층의 어머니들과의 만남을 통해, 자기들만의 정보를 공유하고 자신보다 못한 계층 집단을 배제시킴으로써 사회적 자본과 문화자본을 배타적으로 향유하고 있다. 또한 교육정보를 막강하게 수집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므로 친구관계나 일상생활에까지 속속들이 개입할 수 있는 노하우를 습득하게도 된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다수의 부모들은 경쟁적인 한국사회의 문화적 압력에 저항하지 않으며, 오히려 수용해서 내면화함으로써 경쟁체제를 보다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학부모들은 한국의 교육정책에 대해 불만이 많지만 학교 교육의 내실화와 정부 교육정책의 변화를 위한 공동 대응의 필요성까지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네트워크 형성과 정보 수집 등의 개별 노력이나 사교육비 투자 및 외국 유학 등에 의해 자녀의 성적을 높이거나 더 많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방안 모색에만 급급하다. 개별 가정을 통해 상품화된 다양한 교육형태가 수용되고 있고 물신주의를 통해 자녀 사랑을 표현하는 습속에 의해 한국의 교육열은 더 과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 부모의 개별화되고 과도한 교육열은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걸림돌이 되고 있

다. 능력에 의해 인정받는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더디게 할 뿐만 아니라, 족집게 과외 등 성적을 올릴 수 있는 편법이나 틀을 찾는 데 급급한 도구적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러한 과잉 경쟁 교육의 수용과 자녀에게 일방적으로 가해지는 공부압력은 가족 내외에 모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부모의 공부 중심의 기대표출과 평가 및 공부압력을 수반한 개입은 자녀의 독립심이나 자율성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부모-자녀 관계를 악화시키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한국가족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녀사회화의 내용은 하버마스와 현대사회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통의 합리화’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하버마스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인간 상호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한 합리화가 필요하지만, 상호이해에 기초하지 않은 일방적 커뮤니케이션은 체계를 확장시킬 뿐이라고 지적하였다. 한국 가정에서는 ‘합리적 소통’이 아니라 자녀를 도구화하는 ‘도구적 소통’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음으로 인해 자녀의 생활세계를 참견하고 ‘식민화(colonization)’하는 경향조차 보임으로서 생활세계의 부활이 일어날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있다(하버마스, 2006: 401-412). 부모에 의해 가해지는 갖은 개입과 통제로 인해 자녀는 자신의 견해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지 못하고 부모와의 이해와 합의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고양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참 고 문 헌

- 김소희(2004). 학부모 교육열의 내러티브적 접근. *교육학 연구*, 제42권 제2호, pp. 271-313.
- 도현심(2003). 디지털 시대의 청소년 문화, 부모-자녀관계 및 사회·정서발달. *인간생활 환경연구소 논집*, pp. 47-63.
- 박영신·김의철(2003). 한국 청소년의 성취동기와 학업성취에 대한 부모-자녀관계의 영향: 토착심리학적 접근. *청소년학연구*, 제10권 제1호, pp. 139-165.
- 손승영(2000). 청소년과 부모세대간 의식 차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을 중심으로. *한국 청소년연구*, 제11권 제2호, pp. 129-152.
- 심영희(1996). 시간문화와 여성: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에 나타난 전통, 현대, 탈현대. *한국여성학*, 제12권 제2호, pp. 1-41.
- _____(1999). 자식 바라기 어머니의 전통성과 성찰성: 대입 수험생 어머니의 삶과 정체성. 심영희, 정진성, 윤정로 편. *모성의 담론과 현실: 어머니의 성, 삶, 정체성*, 서울: 나남, pp. 361-388.
- 안우환·김경식(2005). 가족 내 사회적 자본을 통한 학부모의 교육열 탐구. *중등교육 연구*, 제53집 제1호, pp. 29-50.
- 위르겐 하버마스(2006). 장춘익 역. *의사소통이론*, 나남출판사.
- 윤택림(1996). 생활문화 속의 일상성의 의미: 도시 중산층 전업주부의 일상생활과모성 이데올로기. *한국여성학*, 제12권 제2호, pp. 79-117.
- 이선이·김현주·이여봉(2006). 청소년 자녀와 어머니의 교환관계 분석. *한국인구학*, 제29권 제1호, pp. 97-132.
- 이 한(2000). *탈학교의 상상력*, 삼인.
- 임영식(2004). 청소년기의 친구관계. 한국청소년개발원 편. *청소년심리학*, 교육과학사.
- 전상진·김민·최순중(2006). *청소년 문화 여가의 트렌드와 정책과제*, 국가청소년위원회 연구보고서.
- 정용교(1998). 영상시대의 도래와 새로운 청소년 문화의 형성. *한국청소년연구*, 제28호, pp. 52-66.
- 조성남·이동원·박선웅(2002). *청소년의 하위문화와 정체성: 또래집단, 가족, 학교를 중심으로*, 집문당.

- 조성숙(1995). 가족의 자녀교육.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한국가족문화의 오늘과 내일*.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pp. 165-215.
- 최윤진(2002). 사회변화와 청소년 문화탐구-하위문화가 아닌 라이프스타일 탐구로서의 청소년 문화 탐구, *청소년문화포럼*, 통권 6호, pp. 15-26.
- DeWitt, (1992). In pursuit of pregnancy, *American Demographics*, Vol. 15, pp. 48-53.
- Easterline, Richard A. (1973). "Relative economic status and the American fertility swing," in *H.B. Sheldon(eds.), Family economic behavior*. Philadelphia: Lippincott.
- Erikson, E. H. (1994). *Identity: Youth and Crisis*, Norton & Co Inc.
- Inglehart, Ronald.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Park, S. (2006). *The Retreat from formal schooling: Educational manager mothers in the private after-school market of South Korea*,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Illinois.
- Steinberg, L. & S. B. Silverberg(1987). "Influences on marital satisfaction during the middle stages of the family life cycl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Vol. 49, pp. 751-760.
- Zigler, E. and I. L. Child(1969), "Socialization," in G. Lidsey eds.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Reading, Mass.: Addison-Wesley.

ABSTRACT

Socialization of Adolescent Children in Korean Families : Parental Expectations and Involvement

Sohn, Seong-Young*

This paper examined parental expectations and evaluations in regard to their childre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levels of parental involvement in terms of both study and socialization within Korean families in today's consumption-oriented society. In-depth interviews were utilized to understand the detailed processes involved. The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36 parents between July and November, 2007.

The research findings suggest that the shifting tastes or consumption patterns of adolescents have not influenced the family socialization process to any great extent. Parents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ir children in terms of their academic achievement and tend to evaluate their children according to their study habits and school records. Since children are interested in a great many other things than studying, the differences in both desires and interests cause conflicts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ile parents' expectations regarding academic performance increases in line with a child's progression through higher levels of schooling, parents' utilization of informal networks to acquire information on the next stage of education are greater among parents of children in primary schools than those in secondary schools. This study concludes that parents' high expectations of their children and excessive involvement along with a competitive social environment aggravate parent-children relationships. Korean parents tend to exhibit homogeneous tendencies by taking on elements of the competitive nature of society than exhibiting more pluralistic values when it comes to educating their children.

Key Words : socialization of children, parent-children relationship, parental expectations, involvement, educational zeal

투고일 : 9월 19일, 심사일 : 12월 17일, 심사완료일 : 2월 11일

* Professor in Gender Studies, Dongduk Women's University